

# 고흥군, 전국 최대 '스마트팜 원예단지'로 거듭난다

###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포함 64ha 육성지구 지정 교육·실습·창농 원스톱시스템 구축...청년 진입장벽 낮춰

고흥군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포함한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원예단지

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포함한 64ha 규모의 스마트팜 원예단지

가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7월 농식품부의 스마트농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처음 시작돼 스마트팜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군은 올해 1월부터 치열한 준비와 경쟁 끝에 1차 대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육성지구 지구지정형 분야에서

전국 최대 규모 64ha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육성지구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 확대와 농업법인 중심으로 스마트팜 및 가공·유통시설 등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해 지역단위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33ha)와 농식품부로부터 이미 선정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0ha), 스마트원예단지(11ha)가 포함된다.

또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교육·실습·창농의 원스톱 지역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법을 통해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낮추며, 약 2천314㎡(70만평) 규모의 고흥



전국 최대 스마트팜 원예단지 지로 거듭날 고흥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경.

(고흥군제공)

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단계별 확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일 농식품부 현장평가에서 공영민 고흥군수가 직접 평가위원들

과 만나군의 미래 전략 중 하나인 '고흥형 스마트팜 확대'를 강조하며, 육성지

구 지정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했다.

문금주 지역구 국회의원도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함께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공 군수는 "이번 64ha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가 지정돼 매우 기쁘다"며 "2029년까지 약 70만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해 1천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고흥을 대한민국 스마트팜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은 고흥형 스마트팜 확대의 가능성을 여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지구 내 청년 농업인들과 농업법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손쉽게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속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최복환 기자

## 화순 지역경제 활성화·민생 안정 종합대책 발표

### 소상공인 지원 강화·공공요금 동결 등 군민 부담 완화 지역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저금리 대출 지원 등

화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공공요금 동결, 화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군민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화순군은 2025년 1월 한 달간 화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할인율 상향은 모바일 상품권(QR, 카드)에 한해 적용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대로 10% 할인율이 유지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 출연해 특별 보증상품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 운영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110억원 규모의 대출금에 대해 연이자 3%를 지원하며, 개인당 최대 연 300만원까지 이자를 보전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방침이다.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구복규 화순군수가 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화순군제공)

체크해 군정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상점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안정과 군민 생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군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 구례군, 농촌 유학 활성화 '사할'

### 지리산리조트 유학타운 2단지 협약...주거 공간 제공

구례군이 구례지리산리조트에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농촌 유학 활성화에 나섰다.

구례군은 26일 "지난 24일 군청에서 구례지리산리조트와 농촌유학타운 2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구례군은 농촌 유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식은 김순호 구례군수, 양철진 구례지리산리조트 대표, 양경진 구례지리산리조트 부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구례군이 구례지리산리조트 내 부속 건물을 10년간

무상으로 임차해 농촌 유학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농촌 유학 희망 가정에 임대하는 것이다.

특히 구례지리산리조트 내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입주주민들은 도시 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구례군의 현재 관내 농촌 유학생은 67명이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355명의 학생이 농촌 유학을 경험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는 농촌 유학을 통해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더 많은 가정이 구례에서 농촌 유학의 특별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 김한중 군수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장성' 만들 것"

### 2025주요업무보고회에서 총 370건 주요사업 논의

장성군은 26일 "지난 2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관한 부서별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공약 31건, 역점현안 45건, 신규현안 73건, 일반현안 22건 등 총 370건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아이돌봄 돌봄교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교육발전특구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항릉전통시장 특성화 ▲농촌중심지 활성화·기초생활거점 조성 ▲의식산업개발원 운영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 ▲신규소각시설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어 2025년 양대제전 개최와 맞물려 운영할 계획인 '장성 방문의 해' 추진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냈다.

장성군은 ▲명품품 투어 어게인 ▲항릉정원 불꽃놀이 라이브쇼 ▲방문의 달 집중 이벤트 ▲화플레이스 스텝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유치를 늘리고 방문객 유치율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장성호관광지를 사계절 관광명소로 만드는 '장성 윈터랜드 프로젝트' 추진, 사찰음식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사업', 상무평화공원 사계절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에도 주력해 '1천만 관광객시대'를 앞당긴다.



장성군이 지난 23일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한중 군수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성군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수렴·보완해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장성 역사에 남을 특별한 한 해가 되도록 많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다목적 행정선 '장흥통일호' 취항

### 독량만 청정해역 수호·관리 목적

장흥군은 26일 "지난 24일 장흥군 회진면 대리항에서 친환경 선박인 알루미늄 30급 다목적 행정선 장흥통일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에 신조된 다목적 행정선은 장흥군 독량만 청정해역을 수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022년 10월 착공돼 2024년 12월 준공됐다. 장흥통일호는 알루미늄 소재의 친환경 선박으로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 지도, 어장·갯벌 생태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취항식과 함께 행정선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는 안전지원제 및 승선 후 어



장 예찰을 실시해 장흥 청정해역의 지속 유지와 질서 있는 어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어업인 간 결속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다목적행정선 도입은 해양 환경 보전과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청정해역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 기자

## 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조정

### 내년 1월1일부터 한 달간...20만원→50만원으로 상승

담양군은 26일 "실 명절을 앞두고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은 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카드형(모바일)은 기존 30만원으로 유지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매와 카드 발급·충전은 우체국을 제외한 담양 관내 29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

야한다. 카드형 상품권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과 충전은 전용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차크(chak)'에서 가능하다.

담양사랑상품권의 이용 가능 가맹점 현황은 전용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차크(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내 위치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위치 주변

가맹점 또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 한도 상향을 결정했다"며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상품권 이용이 제한되며, 제한 가맹점 현황은 담양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정승규 기자

## 광양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착수

### 총 5억6천만원 투입...29개 경로당 스마트테이블 설치

광양시는 26일 "노인복지관에 갈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4년 스마트블리지 보급확산-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양방향 여가복지 교육 ▲AI 건강관리 서비스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시는 스

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추진해 관내 29개 경로당, 3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비 3억9천만원 등 총 5억6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양방향여가·복지 화상교육시스템 ▲AI 건강관리기기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 ▲차매매방,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테이블이 설치·운영된다. /광양=양홍렬 기자